



10월 19일(목) 17:00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비고

* 행사직후에 "풀기사 별도배포" 되니, 기사 작성에 참고해주시시오.

담당

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

과장 윤현주, 사무관 조성래
(044-200-2211, 2212)

이낙연 국무총리, 부산지역 조선업계 간담회 개최

- 친환경 스마트 선박으로 조선업 미래 밝힌다 -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9일(목) 오후, 테크로스(부산시 송정동 녹산 국가산업단지 내)에서 부산지역 중소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

- * (참석) ▲조선업계(7명, 테크로스 대표이사 박규원, 선보공업 대표이사 최금식, 동화엔텍 대표이사 김강희, 이마린 대표이사 김웅규, 금강중공업 대표이사 금대호, 삼강M&T 대표이사 송무석,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형)
- ▲국회의원 박재호,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김영환
- ▲관련 부처(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인호, 해양수산부 차관 강준석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)

○ 이번 간담회는 최근 환경규제 강화* 및 ICT 기술발전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친환경·스마트 선박 기자재 분야 부산·경남지역 조선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
* 신조 선박의 질소산화물(NOx) 배출기준 약 80% 강화('16.1월), 평형수처리장치 탑재 의무화('19.9월), 선박연료 황산화물(SOx) 함유기준 강화(3.5%→0.5%, '20.1월)

□ 간담회 후 이 총리는 친환경 조선기자재인 선박평형수* 처리장치 생산기업인 테크로스의 생산현장을 참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.

- * 선박에 실은 화물을 하역한 후 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입하는 물
- 물을 유입하는 목적지와 유출하는 출항지간 생태환경이 달라 평형수 유출시 생태계 파괴가 발생하므로 처리장치를 통해 수상생물과 병원균 제거 필요

□ 이 총리는 지난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라 전북 군산지역 조선업체 대표들을 만나 현장애로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(7.26, 새만금 컨벤션센터),

- 조선업의 어려움은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부산·경남지역도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를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

- ※ (붙임) 1. 방문기업 정보(테크로스)
- 2. 녹산산단 일반 현황

□ 기업개요

- 대표이사 : 박규원
- 소재지 :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 433
- 직원수 : 160명 (연구개발 50명)

□ 주요 생산품

- 선박평형수 처리장치(Electro Clean System)
 - 선박의 국가간 이동시 처리되지 않은 선박평형수*의 유출시 해양 오염 및 해양생태계 파괴가 발생
 - 전위차 소독, 전기화학 소독 등의 처리를 통해 평형수내 유기 화합물, 미생물 등의 잔존 차단

* 선박평형수 : 선박에 실은 화물을 하역한 후 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입하는 물로 목적지에서 물을 유입하고 출항지에서 유출

※ 수출액은 매출액 대비 80% 수준

- 전세계 시장점유율('17.8월 기준) : (수주기준) 14%, (납품기준) 20%

□ 주요 포상내용

- 2011년 '장영실상' 수상
- 2012년 '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' 대통령 표창장 수상
- 2013년 '제7회 장보고 대상' 수상
- 2013년 '대한민국 친환경 대상' 선정
- 2016년 '2015 조선해양 우수기자재기업' 선정
- 2017년 '월드클래스 300' 선정

참고 2

녹산산단 일반 현황

□ 단지개요

- 위치 :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·송정동,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
- 조성목적 :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
- 추진경위 : 지정('89.10), 착공('90.07), 준공완료('02.04), 관리개시('99.08)
- 주요업종 : 조선기자재, 철강, 기계, 전기전자, 운송장비

□ 단지규모 : 6,927천 m²(약 211만평)

(단위: 천 m²(천평))

구분	계	산업시설	지원시설	공공시설	녹지
천m ² (천평)	6,972(2,109)	4,317(1,306)	473(143)	1,739(526)	443(134)

□ 입주 및 가동현황

○ 기업체수 : 1,559개사

- 소유구분 : 자가 890개사(57.1%), 임차 669개사(42.9%)
- 업종분포 : 기계(45.7%), 운송장비(10.1%), 철강(8.2%) 등으로 분포

※ 조선기자재업체는 100여개사인 것으로 파악(기계 또는 전기전자로 집계)

- 기업규모 : 중소기업 1,551개사(99.5%), 대기업 8개사(0.5%)
- * 300인이상(8개사, 0.5%), 50인~300인(74개사, 4.7%), 50인 미만(1,477개사, 94.7%)

(단위 : 개사, %)

구분	가동업체							건설·준비중	휴폐업	
	소계	기계	철강	전기전자	운송장비	섬유 의복	기타			
계	1,559 (100)	1,438 (92.2)	712 (45.7)	128 (8.2)	76 (0.48)	158 (10.1)	99 (6.4)	265 (17)	121 (7.8)	- (0.00)

○ 가동현황 : 생산 9조1천억원, 수출 21억불, 고용 32천명

생산(억원)		수출(억불)		고용(천명)		가동률(%)	
'15실적	'16실적	'15실적	'16실적	'15실적	'16실적	'15실적	'16실적
96,756	91,384	26	21	35	32	67.6	68.7

□ 단지특성

- 신항, 김해공항, 남해고속국도와 인접하여 물류·교통의 요충지
- 창원, 울산 거제 등 조선·기계업종의 배후시장 및 거래선 확보
- 소규모 성장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조선기자재산업의 국내 최대 집적지